

# 시공인의 권익과 지위향상 위해 노력할 것



박기준 회장

**존경하는** 회원 및 보일러설비 가족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가고 이제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쪼록 희망과 보람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해 우리협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분야가 갈등과 혼란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마는 우리 협회는 시공인의 권익과 경제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우려 온 한 해였습니다.

우선 보일러시공의 단일 업종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냉·난방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간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수련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자원부로부터 위임받은 난방시공업기술인력의 법정교육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시공업과 관련된 입법과정과 제도의 개선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난해에 발의되었던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국가 기술자격의 법적지위조정과 난방시공업 1, 2종의 통합과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난방기술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시공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절약실천과 가스안전사고예방을 결의하고 일부 도시가사사의 O.E.M.보일러판매 중지를 촉구하는 등 시공인의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협회가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한해 동안 회원님들께서 한결같은 협력과 정성을 모아주셨고 후원사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직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용기와 사명감으로 정진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에도 보일러수요 감소와 과당경쟁으로 시공업계의 영업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지난해 실시한 냉·난방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주방, 침실가구까지를 설치할 수 있는 종합인테리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실명제도입으로 불법시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협회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 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일수록 단합하고 슬기를 모아 대처해 간다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더욱 정성을 모아 시공에 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받는 시공인의 모습으로 다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지난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력에 거듭 감사드리며 회원여러분 그리고 보일러 설비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